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36호 | 발행인: 우남희 | 발행일: 2015년 4월 10일 |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04 April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을 위해

I.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의 필요성

최근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신뢰성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이 필요한 시점임.

- 통계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작용
-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로 교육·보육 통계의 자료 생산 및 담당 기관이 분산되어 통합된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확대에 따른 다양한 통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 ▶ 2012년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시작과,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공급 현황 파악 및 통합적 수급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 통계 산출이 필요함¹⁾.
 - ▶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적 확대와 유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교육·보육 통계의 통합 생산 역시 매우 중요함.
- 유아교육·보육 통계는 「정부 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확대로 새로운 통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활용 요구도 점차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 통계의 통합 생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I.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서로 다른 관리체계에서 생산되어 통계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기준의 통계가 제공되지 못함.

-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승인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하는 보고통계가 2종, 조사통계가 1종으로 전체 국가승인통계 922종(표1 참조) 중 0.3%에 불과

1) 이정원(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 육아정책 Brief 제33호(1월호), p.4.



〈표 1〉 국가승인통계현황

구분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89	922	92	830	404	445	73
정부기관	303	755	73	682	301	400	54
- 중앙행정기관	42	339	56	283	173	139	27
통계청	1	58	40	18	42	2	14
이외기관	41	281	16	265	131	137	13
- 지방자치단체	261	416	17	399	128	261	27
지정기관	86	167	19	148	103	45	19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로는 기관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²⁾가 생산되고 있고, 기관 이용자인 부모에 대한 조사는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보육실태조사」가 유일함.

〈표 2〉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승인통계 현황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방법	승인종류	작성주기 (공표시점)
교육기본통계 <유초·중등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	지정	1년 (매년 9월)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	보고	일반	1년 (매년 4월)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조사	일반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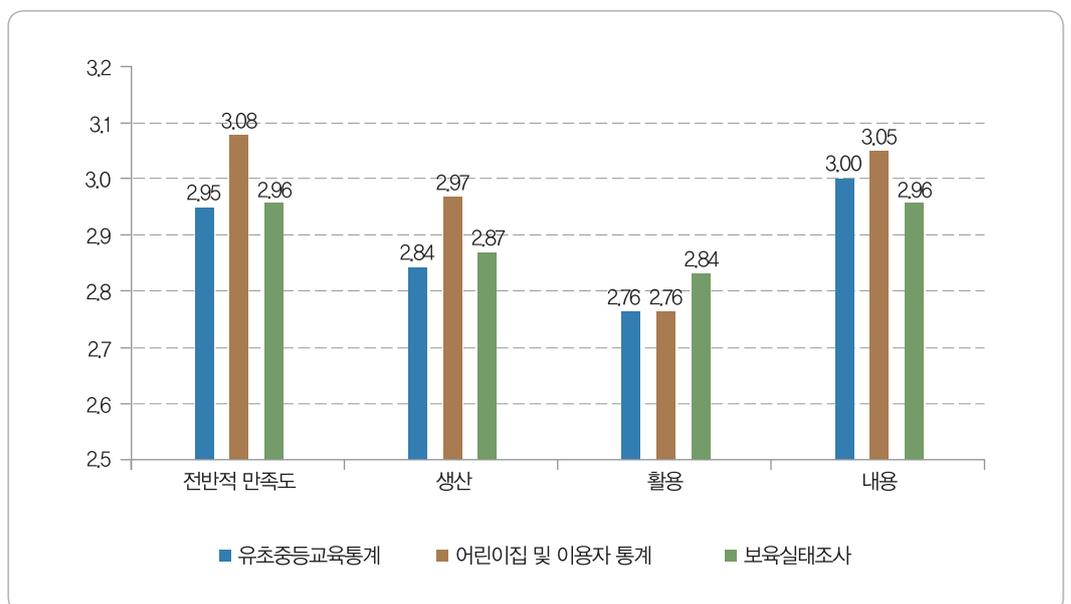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이용 표 구성.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문제점

-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관리 체계가 전부 다르고 표준화된 기준의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를 함께 사용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사의 기준시점, 지표, 세부 항목이 상이하여 비교 분석이 어려움.
-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생산주기가 길고 공표시기가 늦어 시의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못함.
 - 「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의 생산주기는 1년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생산주기는 3년이며,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후 통계가 공표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 이후 유치원·어린이집을 비교하고자 하는 통계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계 기준시점이 달라 2차 지표를 생산하는 경우, 수치 불일치의 문제 발생
-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내용 측면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가 행정자료 위주의 보고통계로서 기관 중심의 통계 자료 생산으로 인해 영유아 특성이나 교육·보육 과정,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심층 통계가 부족함.

2)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보육통계'의 통계청 승인 공식 명칭임.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 또한 이용자들이 원하는 세부 분류까지 제공하고 있지 못해 세부 통계에 대한 개선 및 신규 통계 개발 노력이 요구됨.
-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³⁾(박진아 외, 2014), 「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76점, 「보육실태조사」 2.84점 순으로 통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원자료 획득이 어렵고, 제공하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활용 측면에서 통계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편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제공 방식과 내용의 한계로 인해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주: 4점 척도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자료: 박진아·김정숙·엄지원(2014),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1]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승인통계 만족도

Ⅲ.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방안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및 정보의 통합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체계 전반에 걸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계획 수립
 - ▶ 연계성 있고 실효성 높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수립을 위해 통합적인 통계생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통합적인 생산계획이 필요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조사체계 통합
 - ▶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계의 조사시점을 표준화하고 양쪽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항목, 서로 추가 조사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구별하여 통계의 통합 생산을 위한 조사 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함.

3) 박진아·김정숙·엄지원(2014),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 단기적으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를 중심으로 통합 생산이 필요한 통계를 선별하여 함께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통계 항목을 표준화 한 통합 생산을 제안함.
- 영유아 대상의 국가승인통계 확장 필요
 - ▶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대부분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통계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등에 관련된 국가승인통계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 ▶ 부족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뿐 아니라 관련 통계 정보들을 정리하여 신규 통계로 개발 가능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생산해야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안 검토
 - ▶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되고 있음.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공시시스템(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 정보공시)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정보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승인통계 내용과 일부 중복됨.
 - ▶ 유보통합 1단계 추진으로 유치원 알리미와 어린이집 정보공시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공시를 제공 중임. 시의성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정보공시와 연계한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통합 생산이 필요함.

박진아 부연구위원 gina78@kicce.re.kr